



강이야기
 ● 5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금강

금강 곰나루 이야기

옛날 충청도 고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키가 경충하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한번 본 처녀들은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리 잘났을까? 이 세상사람 같지 않아!’

처녀들은 총각을 냇을 잃고 바라보다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총각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달랐습니다. 처녀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처녀가 나타나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연미산에는 동굴이 하나 있어 암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곰은 어슬렁거리며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잘생긴 총각이로구나. 신선도 저보다는 못생겼을 걸.’

곰은 나무꾼에게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동굴로 돌아와서도 나무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곰은 하루아침에 상사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나무꾼을 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곰은 나무꾼이 다시 산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나무꾼이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곰은 나무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곰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나무꾼 앞에 붙속

나타났습니다.

“으악!”

나무꾼을 기겁을 했습니다. 커다란 곰이 자기에게 덤벼드는 줄 알고 너무 놀라 그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곰은 나무꾼을 동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곰을 꾸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나무꾼 곁에 앉아 있구나…….’

곰은 나무꾼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윽고 나무꾼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앗!”

나무꾼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곰이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어서였습니다. 곰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예? 우리가 같이 살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먼발치에서 당신을 처음 뵈고 나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보고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반대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부가 될 운명이니까요. 당신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세요. 가족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꾼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답니다. 저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해요. 참! 배가 고프시죠? 제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릴게요.”

곰은 나무꾼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슴고기와 과일을 구해와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몹시 시장했기 때문에 사슴고기와 과일을 게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곰은 아주 기뻐하며 끼니때마다 나무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동굴에서 하루빨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이 밤낮없이 감시하고, 외출할 때는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곰은 나무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무꾼을 온 정성을 다해 돌봐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어느덧 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곰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습니다.

어느새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무꾼 남편과 곰 아내는 새끼들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곰 아내가 외출을 하려고 하자 나무꾼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지 말아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없을 때는 동굴 밖에 나와 따뜻한 햇볕을 쬐고 싶거든.”

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깥 구경을 하세요.”

곰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했습니다. 동굴에서 나가며 처음으로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지 않았했습니다.

동굴 속에는 이제 나무꾼과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졸려서 칭얼대더니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혼자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갇혀 살았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두들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겠지?’

나무꾼은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인간



세상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달아나자.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무꾼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곰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하러 동굴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남편이 달아나려고 할지도 몰라.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인간 세상을 오죽 그리워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곰 아내는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아이들만 자기고 있고 남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곰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무꾼이 용케 배를 구해 타고 금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곰 아내는 남편을 애타게 부르며 강가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나무꾼은 곰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곰 아내는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일 거예요!”

나무꾼은 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저어갔습니다.

곰 아내는 새끼 곰 한 마리를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곰 아내는 다른 새끼 곰을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그냥 노를 저어갔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구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곰 아내는 나무꾼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강을 다 건너자, 스스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곰 아내는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새끼 곰들과 함께 물속에 잠겨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곰 아내가 나무꾼 남편을 원망하며 물에 빠져 죽은 금강나루를 사람들은 '곰나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곰 아내가 죽은 뒤에 금강에서는,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곰 아내가 원한을 품어서 그렇다며 사당을 지어 곰 아내의 한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금강에서는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

